

격 려 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덕스님과 귀빈 여러분, 그리고 총장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공사를 맡아주신 도영건설과 협력업체 관계자를 비롯한 불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중앙도서관이라는 지난 1년 여의 뜻 깊은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하게 되어 종도를 대표하여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표합니다.

종단의 깊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회장스님을 비롯한 동문스님들, 그리고 전국의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기에 서로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하는 각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종단 숙원사업인 승가교육의 향상과 불교학연구를 뒷받침하게 될 불교중앙도서관의 개관은 참으로 중요한 종단 교육사업의 일환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 30년 역사에 비하면 이르지 않지만 오늘 이렇게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며, 부처님의 가피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정성과 성원의 결과기에 찬탄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관식은 불교중앙도서관의 진정한 완공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도서관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도서관의 서고와 서가를 채워가면서 원활한 운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수많은 스님과 국내외 학자들이 반드시 이곳을 방문하여 자료를 찾고 만족해하는, 머지않은 뜻 깊은 미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도서와 귀중문헌을 수집하고 수준 높은 연구자료와 전자문헌

자료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티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운영을 통하여 불교 도서관의 허브기능을 해나가도록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작은 늦은 감이 있으나 서원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성취가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 훌륭한 도서관에서 정진한 젊은 스님들이 대학자가 되고 대선지식이 되어서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가고 온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퍼나갈 것입니다.

이제 중앙승가대학은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으로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명실 공히 한국의 나란타대학으로서 학문의 전당으로 우뚝 서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불교를 중흥하는 결사의 장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학문연구의 장으로서 세계인류에게도 상생과 자비를 구현하는 중심도량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승가대학교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그동안 전통과 현대교육을 잘 접목하여 승가교육과 불교학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오늘 교육과 학문에 이바지할 학교중심 공간인 불교중앙도서관을 개관함에 있어, 모든 종도와 불자들은 자랑스럽고 자긍심으로 충만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력을 다하신 대덕스님과 소임자 여러분, 그리고 동문스님과 후원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불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 2555년 9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자 승